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7년 8월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논문

**자연물 꼴라주 기법을 활용한
유아생태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5-7세 아동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안 한 울

자연물 풀라주 기법을 활용한
유아생태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5-7세 아동 중심으로

Development of the childhood eco-art education
program using the nature collage technique :
children between 5 and 7 years-centered.

2017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안 한 울

자연물 풀라주 기법을 활용한 유아생태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5-7세 아동 중심으로

지도교수 조 윤 성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안 한 울

안한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진 원 장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 상 호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 윤 성 (인)

2017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
II. 본론	5
제1절 유아 생태미술교육	5
1. 생태교육의 이해	5
가. 생태교육의 개념	5
나. 생태교육의 필요성	8
2. 유아 생태미술교육	10
가. 유아 생태미술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10
나. 유아 생태미술교육의 특징	13
제2절 미술교육에서의 플라주	14
1. 플라주의 이론적 배경	14
가. 플라주의 개념	14
나. 현대미술과 플라주	16
2. 생태미술교육에서의 플라주	27
가. 생태미술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플라주 기법	27
나. 플라주 교육적 효과	35

Ⅲ. 자연물 풀라주 기법을 활용한 미술 프로그램 개발 38
 제1절 프로그램 개발 기본 방향 38
 제2절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분석 43
 1. 봄 - <나만의 정원 만들기> 43
 2. 여름 - <갯벌 생태계> 50
 3. 가을 - <여러 가지 곡식> 57
 4. 겨울 - <겨울잠 자는 동물> 63

 IV. 결론 70

 참고문헌

표 목 차

< 표-1 > 자연물 꼴라주 기법을 활용한 미술 프로그램	40
< 표-2 > 재료의 다양화	42
< 표-3 > 나만의 정원 만들기	43
< 표-4 > 갯벌 생태계	50
< 표-5 > 여러 가지 곡식	57
< 표-6 > 다람쥐 친구	63

그림 목 차

〈그림 1〉 파블로 피카소 - 등의자가 있는 정물	18
〈그림 2〉 브라크 - 과일접시와 유리잔이 있는 정물	18
〈그림 3〉 카를로 카라 - 애국적 선언	19
〈그림 4〉 마르셀 뒤샹 - 샘	22
〈그림 5〉 라울 하우스만 - 미술평론가	22
〈그림 6〉 막스 에른스트 - 박물지	24
〈그림 7〉 리차드 해밀턴 - 오늘날의 가정을 이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26
〈그림 8〉 플라주 작품	27
〈그림 9〉 파피에 콜레 작품	28
〈그림 10〉 포토몽타주 작품	29
〈그림 11〉 앳상블라주 작품	30
〈그림 12〉 프로타주 작품	31
〈그림 13〉 그라타주 작품	32
〈그림 14〉 데칼코마니 작품	33
〈그림 15〉 나만의 정원 만들기 - 자연체험활동	45
〈그림 16〉 나만의 정원 만들기 - 씨앗 탐색	45
〈그림 17〉 나만의 정원 만들기 - 프로타주 시범	46
〈그림 18〉 나만의 정원 만들기 - 나뭇잎 프로타주	46

<그림 19> 나만의 정원 만들기 - 배양토 탐색	47
<그림 20> 나만의 정원 만들기 - 나만의 정원 꾸미기	47
<그림 21> 나만의 정원 만들기 - 완성작	48
<그림 22> 나만의 정원 만들기 - 완성작	48
<그림 23> 갯벌 친구들 - 갯벌 체험	52
<그림 24> 갯벌 친구들 - 갯벌 체험	52
<그림 25> 갯벌 친구들 - 생물 탐색	53
<그림 26> 갯벌 친구들 - 생물 탐색	53
<그림 27> 갯벌 친구들 - 갯벌 빨 만들기	54
<그림 28> 갯벌 친구들 - 갯벌 생물 풀라주	54
<그림 29> 갯벌 친구들 - 갯벌 생물 풀라주	55
<그림 30> 갯벌 친구들 - 갯벌 생물 풀라주	55
<그림 31> 수확의 계절 - 땅콩 캐기 체험	59
<그림 32> 수확의 계절 - 땅콩 캐기 체험	59
<그림 33> 수확의 계절 - 곡식 탐색	60
<그림 34> 수확의 계절 - 곡식 풀라주	60
<그림 35> 수확의 계절 - 강아지풀 풀라주	61
<그림 36> 수확의 계절 - 완성작	61
<그림 37> 겨울잠을 자는 동물 - 밤 줍기 체험	65
<그림 38> 겨울잠을 자는 동물 - 동화책 읽기	65
<그림 39> 겨울잠을 자는 동물 - 다람쥐 먹이 탐색	66

<그림 40> 겨울잠을 자는 동물 - 먹이 창고 만들기 66
 <그림 41> 겨울잠을 자는 동물 - 포토몽타주 기법을 활용해 다람쥐
 그리기 67
 <그림 42> 겨울잠을 자는 동물 - 솔잎 탐색 67
 <그림 43> 겨울잠을 자는 동물 - 땅속 꾸미기 68
 <그림 44> 겨울잠을 자는 동물 - 완성작 68

ABSTRACT

Development of the childhood eco-art education
program using the nature collage technique :
children between 5 and 7 years-centered.

An Han-Wool

Advisor : Prof. Yoon-sung Cho Ph.D

Fine Art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Our modern society has entered information society going through agricultural society and industrial society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The advanced technology of information society has brought us lots of issues such as environmental destruction, change in traditional values, and social regulation collapse as well as convenience to our life. As human beings are living with nature, a series of destruction has demanded different set of values and paved the way for the rise of ecology, leading to the emergence of new educational paradigm based on ecology, namely 'ecological education,' a new form of education. Ecological education is an important area also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Developmental psychologists note that positive and negative recognition with respect to specific objects start to form around the age 4, and the recognition on nature formed during early childhood endures into adult years.

So, it is essential for children to be in full communion with nature from the early age in order to instill positive recognition on nature.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aims to handle the development of eco-art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program where ecological education and art education are combined to maximize the educational effect. The eco-art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combining art and ecological education can promote creativity development, aesthetic ways of expression, and confidence by encouraging free expression activity and exploring natural objects. Furthermore, it not only fosters modeling and creativity by using collage techniques but allows a wide range of art experience by taking advantage of various techniques and materials. This article utilizes the collage technique with natural objects which enhances educational effect by integration of art and ecological education.

The article consists of 4 chapters. In the 1st chapter, the goal of the research and method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ecological education and eco-art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are investigated. In chapter 2, the concept, necessity, and characteristics of eco-art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is reviewed after handling the concept, necessity and background of ecological education.

Then, in the section of theoretical background of collage in art education, the concept of collage and collage technique of modern art as well as collage techniques applicable to ecological art and the potential effect through it are examined.

In chapter 3, materials and expression techniques utilizing the collage technique with natural objects of eco-art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is handled and the development of eco-art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program is described.

The age of research subject of development program is set as 5~7 considering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early childhood subject to get more influence from outer environment. Based on life experience of children, a program specializing in life themes, ecology and art activity was developed. And more broadly, 4 programs in total with the major theme of 4 seasons, such as spring, summer, winter and fall of our country was developed, of which activity analysis was performed. In chapter 4, in conclusion, the method to promote the ways of eco-art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is suggested to develop aesthetic impression, creativity, and expressive capability by linking with art education as well as to allow children to learn ecosystem of nature, to explore natural objects, and to get more interest in nature and affection for it. Moreover, a method to raise the educational effect is suggested by introducing the collage technique to the eco-art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using natural objects which can be easily obtained from around us, and activity analysis is also performed.

As a result of the activity analysis, it became clear that it is time-consuming job to change the recognition on nature and cultivate environmental ethics. However, it has been revealed that children's curiosity and expressive capability and their learning attitude are improved through the link with art class exploring and experiencing natural objects. In order to realize effective eco-art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it is required to develop various programs, and only through the constant effort for such education, it can be expected that educational effect will be transferred to children. In this article, we developed a program focusing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s such as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kindergartens, and nursery schools, but programs that can be continuously implemented in experiential institutions, ecological museums, and external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also expected to be developed.

I.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들어서기 시작한 후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어 아이들은 밖에서 자연을 접하며 뛰어노는 시간보다 스마트 폰, 컴퓨터 등 전자 기기에 더 흥미를 갖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았다.

또한 지식주의 교육이 강조되면서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한글, 수학, 과학, 영어 등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연과 교감하며 살아가는 교육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자연에 대한 관심과 감정이 메마르게 되는 현실을 초래했으며 자연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이로 인해 생태학이 대두되었다.

생태에 대한 관심은 생태학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생태교육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숲 유치원, 생태 유치원, 생태 체험 학습장 등이 등장하였고 일반 유치원에서도 식물 기르기, 텃밭 가꾸기, 찾아오는 동물나라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생태미술은 생태교육의 일면으로 연구되었으나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야외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됨에 따라 프로그램이 국한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논문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연물을 중심으로 야외활동과 교실 안에서 그리기, 만들기, 감상 등의 다양한 활동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교육에 다양한 플라주 기법을 가져와 도심 속 교육현장에서도 유아 생태미술교육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자연친화적 태도 함양이나 미술 능력 발달을 도모, 자기중심적으로 표현하는 단계를 초등학생 저학년으로 보고 연구 대상 범위로 초등학생 위주의 연구가 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5-7세로 연구 대상 범위를 정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또 다른 시각에서 생태미술교육을 분석하려 한다.

피아제 인지발달에서는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탐색이 나타나는 시기를 유아기로 보았으며 발달심리학자들은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나 부정적인 인식이 만 4세 전후에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비추어 보았을 때 자연과 인간을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인식하고 자연의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이러한 인식과 개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은 유아기 때 이루어져야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유아기 때의 생태교육이 중요시됨에 따라 자연생태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체험학습장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심에서 거리가 멀고 매주 방문 하여 체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일회성 성격을 띠는 교육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생태교육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현재 아이들이 직면 하고 있는 교육의 현실이다.

이러한 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주변 생태 환경을 적극 활용하면서 자연을 통해 얻어지는 자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하는 교육에 목적을 두었다. 또한 미술교육과 생태교육의 통합교육으로 자연물을 다양한 플라주 기법을 이용하여 도심 속 교육현장에서도 활용 가능한 유아 생태미술교육을 개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본 논문은 유아생태미술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연물을 이용해 풀라주 기법을 활용한 생태미술교육이 유아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야외 체험과 교실 안에서도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를 하였으며 야외 체험활동 시 자연물 소재를 직접 채집하고 사용하는 자연친화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생태미술교육에 풀라주 기법을 가져옴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두었고 풀라주 기법이 다양한 표현활동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 대상 범위는 5-7세 아동으로 제한하였다.

유아기는 주변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환경적 영향과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그것을 관찰하며 풍부한 감정과 미적 감수성을 기르고 다양한 생태미술교육의 표현활동을 하며 유아에게 잠재적 능력을 일깨워줄 수 있는 시기로 판단하여 대상을 5세, 6세, 7세로 설정하였다.

1장에서는 생태교육과 유아 생태미술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 목적과 방법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2장에서는 생태교육의 개념과 특징, 유아 생태미술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다. 더 나아가 미술교육에서의 풀라주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고 현대미술사조에서 풀라주의 발생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생태미술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플라주 기법에 대해 소개하고 자연물 플라주 기법을 활용해 표현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교육적 효과에 대해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생태미술교육의 소재로 사용되는 다양한 자연물을 활용한 아동 미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안을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4장 결론에서는 아이들에게 자연의 생태계를 알아가고 자연물을 탐색하며 자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하며 미술교육과의 통합으로 아이들의 심미성, 창의성, 표현력 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유아 생태미술교육의 방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 생태학 관련 문헌연구를 통해 유아 눈높이에 맞는 생태 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미술교육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둘째, 5-7세를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맞는 생태미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학습 현장에서 적용시킨다.

셋째, 아이들에게 적합한 미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나타난 결과를 분석하고 생태미술교육이 유아 발달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생태미술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II. 본론

제1절 유아 생태미술교육

1. 생태교육의 이해

가. 생태교육의 개념

현대 사회는 짧은 시간 동안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 그리고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보화 사회는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가장 존중받아야 할 인간 생명의 가치가 첨단 기술보다도 경시 되는 가치 전도 현상과, 사회의 규범을 파괴시키는 것과 같은 문제를 가져왔고 또한 이러한 정보화 사회는 요즘 아이들을 스마트 폰, 태블릿PC, 전자기기, TV로 모든 정보를 접하고 경험하며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대 사회는 사이버 중독을 낳고 컴퓨터, 네트워크의 의존도는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자연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이로 인해 생태학(生態學, ecology)이 대두 되었다.

생태학이란 우리 인간들의 삶을 존재하게 해주는 자연과 그 안에 있는 생물들과 우리 인간들을 연결해주는 학문이다.

더 구분해 보면 첫째, 인간을 포함한 많은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터전인 자연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둘째, 인간을 포함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터전인 자연이 어떻게 유지되고 생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관계를 인식하고 연구하는 것, 셋째, 자연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¹⁾

생태학이 대두되면서 현대사회가 가져오는 문제점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생태교육이 등장하였다. 사전적 의미로써 생태는 생물이 살아가는 모양이나 상태를 말하며, 교육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나아가 인격 형성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생태교육이란 생물이 살아가는 모양이나 상태 등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며 이를 통해 개인의 기질 형성에 바탕이 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연과의 공동체적 의미를 갖는 환경교육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의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노상우(2015)의 연구에 따르면, 생태교육은 인간 중심의 교육이 아닌 생태주의를 바탕으로 교육의 초점을 생태 간 생명의 가치를 지향하는데 두고 더불어 인간과 생태 간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올바른 태도 개발에도 관심을 갖는 교육이다. 즉, 인간과 자연의 생리가 동일함을 인식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능을 가르치는 교육을 말한다.

1) 황혜경 외, 『자연물 중심의 유아 생태미술교육』, (서울: 창지사, 2016), p.19.

이러한 생태학을 기반으로 한 기존 교육 프로그램에는 야외교육, 자연보존 활동, 환경교육, 생태학교육, 지구교육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활동에는 자연물 꼴라주 기법을 활용한 미술 프로그램이 있다.

생태교육의 목적은 아이들로 하여 생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갖도록 더 나아가 환경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라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생태교육은 최근 자연 친화를 중요시하는 대안학교를 비롯해 여러 교육 분야에서 체험학습 형태의 교육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자연물 꼴라주²⁾기법이 생태교육 목적에 기반을 둔 새로운 미술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2) 자연물 꼴라주 :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물을 생태미술소재로 이용하여 다양한 꼴라주 기법을 활용한 미술 활동.

나. 생태교육의 필요성

현대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들어서기 시작한 후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어 아이들은 밖에서 자연을 접하며 뛰어노는 시간보다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 기기에 더 흥미를 갖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았다. 또한 지식 주의 교육이 강조되면서 아이들은 자연과 더 멀어졌다고 볼 수 있다. 불과 20-30년 전에는 아이들이 밖에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공동체로 생활을 하였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교육의 문제로 인해 자연에 대한 관심과 감정이 메마르게 되었다. 이러한 현대 사회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자연과 멀어지고 있는 현실에 자연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이로 인해 생태학이 대두되었다.

생태에 대한 관심은 생태학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나타났다으며 생태와 교육의 만남은 유아교육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교육은 유아교육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발, 연구되고 있다. 또한 숲 유치원, 자연생태 유치원, 생태 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태교육의 관심도는 높아졌다. 이러한 생태교육은 자연의 모든 사물을 오감을 통해 자아표현, 감정, 생각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생명의 가치와 생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갖게 한다. 또한 관찰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유정(2013)의 논문에서는 생태미술활동을 통해 유아는 자연현상과 사물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생태계를 이해하며 올바른 인식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가게 되며 유아 시기의 생태미술교육은 그 어떤 시기보다 중요하며 다양한 교육적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보았을 때 생태교육은 현대 사회의 문제로 인해 메
마른 감성을 다시 일깨울 수 있는 생태교육 필요성이 대두된다.

2. 유아 생태미술교육

가. 유아 생태미술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유아교육에서는 생태와 관련된 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자연을 체험하고 생태를 체험하는 학습의 숲 유치원으로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숲 유치원의 시작은 덴마크라고 알려져 있으며, 첫 시작인 덴마크를 중심으로 새로운 숲 유치원들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숲 유치원 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 독일은 현재 1,000여 개 가량의 숲 유치원이 자연과 생태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바깥놀이 프로그램’, ‘산책 프로그램’,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 ‘생태미술 프로그램’등 생태유아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며 현재 이러한 생태유아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현대사회가 가져오는 문제점으로 인해 오는 폐해와 과학화 기술화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교육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인간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유아는 자연에서 다양한 오감활동을 통해 자연의 이치와 자연의 변화를 알 수 있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러한 유아기 교육적 경험은 생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이러한 유아기 교육적 경험을 통해 생태교육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태미술교육의 필요성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에는 ‘자연미술’, ‘환경미술’로 자연물을 활용해 표현을 하는 미술활동에만 머물렀다면 생태미술교육은 생태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미술교육의 하나의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생태미술교육은 자연미술, 환경미술과 비슷한 부분이 있으나 생태미술교육이 ‘자연미술’, ‘환경미술’과 다른 점은 자연물을 활용해 표현하는 미술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자연을 탐색하고 순환구조를 이해하며 자연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자연주의 교육의 창시자인 루소(Rousseau, 1712~1778)는 자연관찰과 체험을 통해 느낀 아름다움과 미적 요소를 사물(자연물)로 표현하면서 자연 속에서 인간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³⁾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보았을 때 생태교육과 미술교육의 통합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유아기 생태미술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다. 유아 생태미술교육의 필요성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미술은 다양한 자연물 탐색을 통해 자연과 가까워 질 수 있다.

유아 미술교육 특징을 살려 만지고, 소리를 듣고, 맛보고, 관찰하고, 냄새를 맡아보는 오감 체험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표현하면서 창의성을 기를 수 있으며 생태교육과 미술교육을 통합하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3) 황혜경 외, 『자연물 중심의 유아 생태미술교육』, (서울: 창지사, 2016), p.23.

둘째. 생태미술은 정보화 사회의 많은 문제점으로부터 더 나은 방향으로 데려가 줄 수 있다. 나무, 꽃, 흙, 돌, 풀, 곤충 등 자연을 접하면서 자연을 느끼고 그 속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정보화로 인해 생긴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보화 사회의 편리함과 장점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현대사회에 맞게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실에서 보기 힘들고 산이나 들로 나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자연물, 소리 등을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 산이나 들로 나가지 않아도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해 접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요즘 아이들은 아이디어를 잃어버리고 자연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아이들에게 자연친화적인 삶을 일깨워주고 자연을 경험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유아기에 형성된 지식과 태도는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이 주어진다. 긍정적, 부정적 태도는 유아기에 결정되므로 생태미술교육이 이루어지기에 유아기의 교육은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자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유아기 미술교육을 통해 표현의 즐거움, 사물에 대한 탐색을 하며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나. 유아 생태미술교육의 특징

유아 생태미술교육은 유아기 때 형성된 자연에 대한 개념과 태도는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이 주어지고 이러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은 유아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유아 생태미술교육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미술교육을 통해 사물에 대한 탐색과 다양한 미적 표현 방법을 경험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자연물은 아이들이 놀이 소재가 될 수 있다.

집안에서 장난감을 이용해 놀이를 하는 요즘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동식물 등과 같은 재료가 새로운 놀이 소재로 다가오고 이러한 놀이 소재는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재료들은 미술재료의 활용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신선하고 새로운 놀이 소재로 다가올 수 있다.

둘째. 유아생태미술교육은 유아의 감각을 깨워주는 활동이다.

페스탈로치는(Pestalozzi, 1792~1852)는 아이들이 직접 듣고, 만지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는 오감체험활동을 통해 실물 중심의 교육이 아동의 본성에 맞는 교육이라 하였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맛보고 냄새를 맡고 귀로 듣는 오감활동은 아이들이 창의성을 확장시키고 자연에 대한 인식변화와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셋째. 유아생태미술교육은 자연과 상호작용을 통해 생태 순환구조를 알아가고 올바른 가치관형성, 자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길러주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미술교육과 생태교육의 통합으로써 다양한 자연물의 탐색과 그걸 이용한 표현활동은 아이들의 흥미유발에 도움이 된다.

제2절 미술교육에서의 콜라주

1. 콜라주의 이론적 배경

가. 콜라주의 개념

콜라주는 붙어인 coller에서 나온 말이다. coller는 풀로 붙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용되어 작품에 잡지, 인쇄물, 천 조각, 나뭇잎 등 여러 가지 재료를 붙이러한 기법은 입체주의 시대의 피카소 (Pablo Ruiz Picasso : 1881 ~ 1978)와 브라크 (Georges Braque : 1882 ~ 1963)가 화면에서 입체적 효과를 높이고, 그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방식처럼 물감을 사용하여 화면을 구성하는 대신 종이, 신문, 벽지, 상표 등 실제 물체를 화면에 붙이면서 파피에 콜레라는 기법을 창조하였다.

콜라주가 처음 등장 할 때는 잡지, 인쇄물, 천 등 자료들이 화면에 붙여진 파피에 콜레의 형태로 몽타주나 앳상블라주와 구별되어 사용되었었다.

다다에서는 에른스트, 슈비터스, 하우스만 등이 콜라주 기법을 창안하였고 20세기 현대 미술에 큰 영향을 끼쳤다. 콜라주는 주변에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들을 화면에 가져옴으로써 예술 개념의 변화를 가져왔다.

콜라주 기법은 화면에 붙여지는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물체처럼 보일 수 있다.

현재 이르러서 콜라주의 개념은 작품의 형식을 말하기 보단 화면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행위로 그 의미가 확대되어 콜라주라는 하나의 표현 방법, 수단으로 이해된다.

콜라주는 재료의 차이임에도 그 경계가 애매하여 풀로 붙여 만들어진 그림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정의할 수 있으며 콜라주는 예술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나. 현대미술과 꼴라주 기법

현대미술사는 통상적으로 야수파, 입체파, 미래파, 표현주의 등의 사조를 말한다. 이러한 경향들이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집단운동으로부터 알려졌고 어떤 경우(미래파, 초현실주의)에는 미술과 그 운동의 문맥이 결합되어서 함께 발전되었던 것도 사실이다.⁴⁾ 현대미술의 역사를 살펴보면 현대미술은 프랑스 혁명 이후 낭만주의부터 지금, 현재까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부터 기존의 예술표현 양상에 변화가 가속되었다.

꼴라주는 20세기 미술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미술뿐 아니라 컴퓨터, 사진, 일러스트,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꼴라주의 등장 배경은 입체주의 시기의 피카소 (Pablo Ruiz Picasso : 1881 ~ 1978)와 브라크 (Georges Braque : 1882 ~ 1963) 등이 그림에 입체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꼴라주 기법에서는 신문지, 벽지, 나무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며, 이들을 조합함으로써 표현한 것이다. 물감으로 화면에 그림을 그리는 기존 회화기법이 아닌 그림에 재료를 붙여 작품을 만드는 행위는 미술사조에 지속적이며 큰 영향을 미쳤다. 현대 미술사조와 꼴라주의 관계성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4) 노버트 린트 지음, 윤난지 옮김, 『20세기의 미술』, (서울: 예경, 2003), p.10.

1) 입체주의의 플라주 (1907~1914)

입체주의란 1900년~1914년에 일어났던 예술 운동 중 하나이다.

입체주의는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시기를 입체주의 시대(1907~1909), 분석적 입체주의 시대(1910~1912), 종합적 입체주의 시대(1913~1914)로 각각 구분할 수 있다. 입체주의 시대는 세잔느의 영향을 받았다.

세잔느의 작품은 비원근법적이며 형태가 왜곡된 작품이다. 세잔느의 작품을 따라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본 시점이 표현 되었다. 그리고 분석적 입체주의는 대상을 작은 면으로 해체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본 사물의 입체적 모습을 함께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물체를 분해하여 재구성하는 분석적 입체주의 이후에 피카소와 브라크는 사물의 재현을 다루는 2차원의 평면에 신문지 또는 입장권, 벽지, 딱지 혹은 노끈 등의 주변 물체를 이용해 평면의 환영과 실제 사물을 통합하였다.

이러한 형태로 생겨나는 효과로 인해 색채를 화면에 다시 집어넣는 종합적 입체주의가 나타났다. 종합적 입체주의 시대에 평면 색채 구성의 방법들 중 플라주나 파피에 콜레 방법이 등장 하였다. 플라주 기법은 20세기 미술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피카소의 '등의자가 있는 정물' <그림1>은 최초의 큐비즘 플라주 작품이다.

작품을 살펴보면 실제로 붙여 놓은 등의자 일부가 보이며 작품의 테두리가 맞출로 되어 있다. 피카소는 화면에 기존 회화 표현의 재료인 붓과 물감이 아닌 등나무 의자가 인쇄되어 있는 기름칠 조각을 화면에 붙이는 작업에서 플라주가 등장하게 되었다.

1911년에는 브라크가 만든 최초의 파피에 콜레가 등장하였는데 브라크의 ‘과일접시와 유리잔이 있는 정물’〈그림2〉이라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인쇄가 된 무늬가 있는 벽지 세 조각을 붙였다. 이로써 파피에 콜레가 창안되었다.

피카소는 화면에 이질성을 띠는 재료들을 결합시킨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 꼴라주의 발견자라 할 수 있고 브라크는 종이 조각들이 작품에 응용되는 꼴라주의 한 방법인 파피에 콜레의 창시자라 할 수 있다. 피카소와 브라크는 꼴라주를 화면 구성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였고 피카소와 브라크의 꼴라주는 현대미술사조에서의 꼴라주가 시작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파블로 피카소(Pablo Ruiz y Picasso, 1881.10.25.~1973.4.8.),
 등의자가 있는 정물, 1912.



〈그림 2〉

브라크(Georges Braque, 1882. 5.13.~1963.8.31.), 과일접시와 유리잔이 있는 정물, 1912.

2) 미래주의의 플라주 (1909~1914)

20세기 초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발생한 예술운동으로서 예술 전반에 걸쳐 대두된 움직임이었고 미술도 예외는 아니다.

1910년에는 보치오니Umberto Boccioni(1882~1916), 카라Carlo Carra(1881~1966),세베리니GinoSeverini(1883~1966),발라Giacomo Balla(1871~1958) 등 미래주의 작가들이 수많은 관중 앞에서 <미래주의 화가 선언>을 선언하였다. 또한 보치오니는 기존의 전통적 재료가 아니라 유리, 하드보드, 나무, 거울 등 다양한 모든 재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카라(Carlo Carra;1881~1966)의 ‘애국적 선언’<그림3>은 입체주의 플라주가 미래주의에 사조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잘 나타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글자는 정치적 의미를 명확하게 보이며 당시 고조되던 전사의 분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다. 또한 활자의 플라주가 단단한 조형적 특성을 보이며 재료나 내용구성에 있어 도상의 의미를 띠어 다다이즘 플라주의 선조가 되었다.



<그림3>

카를로 카라(Carlo Carrà, 1881.
2.11.~1966.4.13.), 애국적 선언, 1914,

3) 다다이즘 플라주(1915~1924)

1915~1922년대에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났던 반문명, 반합리적인 예술운동이다. 다다란 여러 나라의 말이 있고 또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어로 ‘목마’를 의미한다.

다다는 미래주의와 나란히 20세기 초반의 강력한 문예운동이었던 다다는 ‘반 예술’의 자세로 우연에 의거한 작업 태도를 보였다. 사실상 다다이즘은 미래파나 큐비즘과 같은 하나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에 대한 하나의 태도를 가르치는 것인데 즉, 미술이란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관념에 대한 도전 의식인 것이다.⁵⁾ 미술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방법은 미술가들에게서도 다르게 나타나지만 이러한 미술가들의 공통점은 모든 가치에 대한 비합리적인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초기의 다다에서 한스 아르프(Han Arp;1887~1966)는 우연 플라주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그는 ‘우연의 법칙에 의하여’ 화면을 구성한다. 선택 또는 계획적이지 않은 우연이라고 하는 바람, 중력, 공기 등 에 의해 결정되는 위치, 순서에 따라서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다다의 또 다른 미술가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1887~1968)은 지금까지의 회화 표현 양식을 벗어나 기존에 만들어진 기성품을 이용해 레디메이드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안 하였다. 마르셀 뒤샹의 대표적인 작품 ‘샘’〈그림 4〉는 남성용 변기에 사인을 하고 전시회에 출품을 하였는데 변기에 쓰인 사인은 변기를 만든 욕실용품 제조업자의 이름이다.

5) 이지연, “미술교육에 있어서 창의적인 미술활동 지도방법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p.10.

이 작품은 대단한 물건도 아니며 하나뿐인 물건도 아니다. 그러나 이 작품을 선택하여 예술작품으로 만든 것은 또 다른 새로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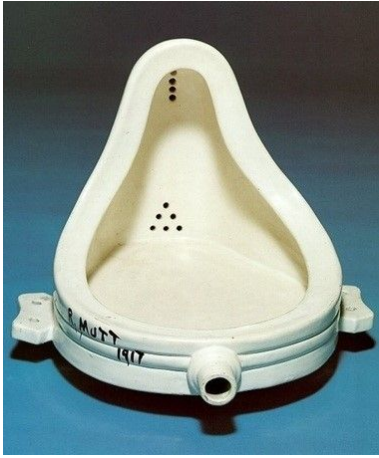
마르셀 뒤샹과 반대로 슈비터스(Kurt Schwitters; 1887~1948)는 입체주의 꼴라주와는 다르게 버려지는 폐품들을 작품에 가져와 이와 같은 물건들로 미술관에서 전시되는 예술작품을 만들어냈다. 슈비터스는 종이, 껌, 신문지 조각, 형겔 조각 등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고 그 위에 채색하는 방법으로 작품을 완성했다.

슈비터스의 작품 중 몇 개의 꼴라주 작품에 ‘메르츠’ 라는 이름을 붙였다. 메르츠(MERZ)는 그가 제작한 작품 중 Privatund Korm MERZ BANK, Hanover이라는 은행 광고 중 찢어진 종이 조각에 MERZ라고 인쇄된 글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작품 명제로 사용했다. MERZ라는 명칭은 슈비터스의 모든 작품의 명칭으로 통용되게 되었다.

다다의 반 예술적인 이미지를 위한 실험적 시도로서 포토몽타주가 탄생하였다. 포토몽타주는 서로 관계없는 사진 이미지를 화면에 가져와 붙이면서 새로운 의미를 갖고 합성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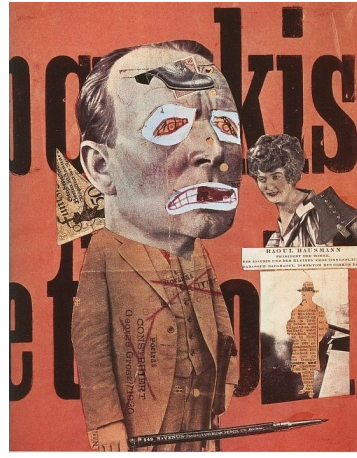
다다주의는 기존 체제를 부정함으로써 예술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여기서 새로운 가치라 하는 것은 예술에서 기존 회화에 벗어나서 실험적인 방식의 꼴라주를 창안한 것이다. 이렇게 다다에서의 꼴라주는 이후 전개될 현대 미술이 태동하기 위한 모티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우스만(Raoul Hausmann; 1886~1971)은 정치적이며 풍자적인 성격을 띤 포토몽타주 기법을 창안하였다. <그림5> 이때 만들어진 꼴라주와 포토몽타주 작품은 이후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갈 때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림 4>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1887.7.28.~1968.10.2.), 샘, 1917.



<그림 5>

라울하우스만(Raoul Hausmann,
1886.7.12.~1971.2.1.),
미술평론가, 1919,

4) 초현실주의의 플라주 (1920~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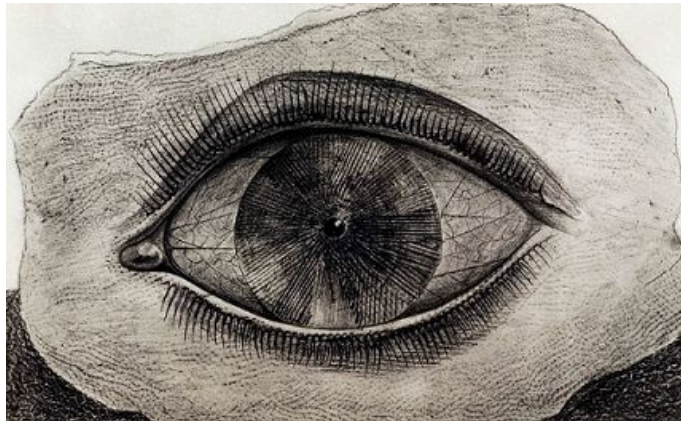
초현실주의는 20세기 운동들보다 세계 1차, 2차 대전동안 가장 넓게 확산되었고 추상미술과 20세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예술 사조라 볼 수 있다. 초현실주의는 다다의 표현 방법 위 무의식을 나타내기 위해 자동기술법⁶⁾을 개발 했다.

초현실주의 막스 에른스트(Max Ernst;1891~1976)는 프로타주와 플라주, 그라타주, 데칼코마니 같은 기법들을 탄생시켰다. 막스 에른스트의 프로타주 기법은 옛날이야기, 삽화를 오려 붙이는 기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엉뚱하고도 참신한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초현실주의 플라주를 확립하였다. 그는 나뭇잎이나 천, 실 등을 이용해 프로타주 기법에 응용하였고 프로타주 기법을 사용한 작품을 모아 ‘박물지’라는 작품을 탄생시켰다. <그림6>.

막스 에른스트는 주변에서 볼 수 없는 이미지를 우연성을 띠는 이미지로 나타나게 하며 초현실화 시켰다. 막스 에른스트는 1930년대 이후에 도밍게즈가 개발한 데칼코마니⁷⁾를 그림에 활용하였다. 또한 막스 에른스트의 초현실주의 적 플라주는 프로타주기법을 통해 회화영역의 개성 있고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에 가치가 있다.

6) 자동기술법(Atomatisme); 모든 습관적 기법이나 고정관념, 이성 등의 영향을 배제하고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리는 것을 말한다.
 7) 데칼코마니(Decalcoomanie) ; 어떤 무늬를 특수종이에 찍어 얇은 막을 이루게 한 뒤 다른 표면에 옮기는 전사술의 회화기법으로 종이 위에 그림물감을 바르고 그것을 두 겹으로 접거나 다른 종이를 압착했다가 떼어내면 거기에 색다른 채색상태가 생겨 다양하고 환상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1904~1989)는 우연적인 이미지를 화면에 콜라주를 해 작가의 상상력과 가공으로 그려진 세계를 만들었다. 'A Tray of Object'에서 장난감, 리본 모양의 빵, 석고로 만든 발 등 전혀 이질적인 물건을 한데 집합하여 전시하였는데 이것은 사물의 우연한 조합으로 환치기법을 극대화하여 표현한 앙상블랑주로서 작품 제목과 같이 탁자 위의 음식을 보는 것과 같은 또 다른 연상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⁸⁾



<그림 6>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1891.4.2.~1976.4.1.),
 박물지(Histoire naturelle), 1926,

8) 이진아, “현대미술에 있어서 콜라주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52.

5) 팝아트의 플라주(1950~1970)

팝아트란 파퓰러 아트 (Popular Art, 대중예술)를 축약시킨 말로 뉴욕을 중심으로 1950년에서 1960년대에 걸쳐 일어난 미술의 한 경향이다.

팝아트는 추상 표현주의에 반기를 든 젊은 미술가들이 매스 미디어를 플라주 기법으로 사용해 주변 사물의 이미지를 표현함으로써 팝아트가 시작되었다. 팝아트는 오브제를 하나의 이미지로 오브제 그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대중들이 많은 소비를 하는 일반적인 상품을 매개체로 삼고 이를 통해 오브제와 예술에 접근하였다.

리차드 해밀턴(Richard Hamilton;1922~)의 대표적인 플라주 작품인 ‘오늘날의 가정을 이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림7>이라는 작품은 기존의 이미지를 가져와 화면을 구성하였는데 이러한 발단으로 인해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가져와 작업하는 팝아트의 전통이 만들어졌다.

앤디워홀(Andy Warhol;1928~1987)은 두 개의 마릴린, 재키, 캠벨수프 등 미국에서 많은 소비가 있는 상품과 유명 인사나 배우 등 대중들에게 가깝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상을 이용해 작업을 하였는데 앤디워홀은 많은 생산이 가능하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실크스크린기법을 작품에 가져와 대량 생산해냄으로써 소비사회에 맞춤형이라 할 수 있는 예술로 탄생하였다.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1925~)는 기존의 회화양식인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아닌 일상에서 버려지는 사물들, 파기된 물건들을 결합하여 화면을 구성하여 만들었다.

이것은 예술이 우리의 생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폴라주의 확대된 개념인 컴파인 페인팅이 로버트 라우센버그에 의해 등장하였다.

이 외에 제스퍼 존스, 로이 리히텐슈타인, 올덴버그 등 팝아트 작가들이 있다. 이러한 팝아트 작가들은 소비사회에서 나타내는 많은 이미지들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방법으로 새롭게 구축하였다.



<그림 7>

리차드 해밀턴(Richard Hamilton,
 1922.2.24.~2011.9.13.), 오늘날의 가정을
 이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1956, 폴라주, 26 ×24.6cm

2. 생태미술교육에서의 꼴라주

가. 생태미술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꼴라주 기법

미술에서의 꼴라주의 기법은 다양한 기법들이 있다. 파피에 콜레, 포토몽타주, 데칼코마니, 프로타주 등 이러한 기법들은 미적 감각, 소질, 재능이 없어도 손쉽게 가능해 미술교육현장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기법들이다.

아이들은 다양한 꼴라주 기법을 활용해 표현활동의 확대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다양한 표현활동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이러한 기법들을 유아생태미술프로그램에 활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더욱 극대화 하는 데에 목적에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유아생태미술교육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꼴라주 기법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꼴라주

꼴라주는 붙어인 coller에서 나온 말이며 coller는 풀로 붙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입체주의 시대의 피카소, 브라크에 의해 창안되었다. 작품에 잡지, 인쇄물, 천, 나뭇잎 등을 붙이면서 시작되었고 꼴라주라는 ‘풀로 붙여진 그림’이라는 의미와 정의로 포괄 된다.<그림8>



<그림8> 꼴라주 작품

1-1. 파피에 콜레

파피에 콜레는 불어로 papier 종이, coller는 ‘붙이다’라는 뜻으로 인쇄물, 천 등을 찢어 붙이는 꼴라주 기법의 일종이다. 파피에 콜레는 입체주의 시대의 브라크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화면에 입체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회화방식인 물감을 사용하여 화면을 구성하는 대신 종이, 신문, 벽지, 상표 등 실제 물체를 화면에 붙이면서 구성하는 방법인 파피에 콜레라는 기법을 창조하였다.

파피에 콜레는 아이들이 기존 회화방식 이외에 색종이, 잡지, 신문지 등 여러 가지 재료를 붙여 다양한 화면구성을 할 수 있다. <그림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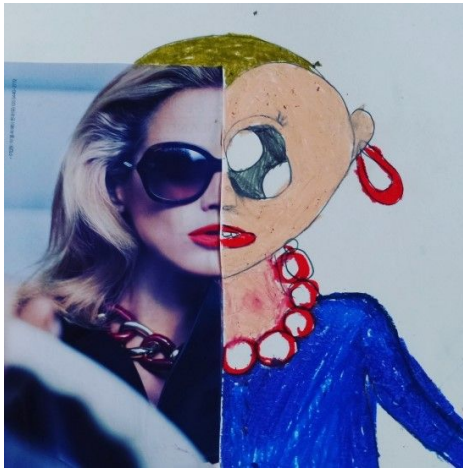


<그림9> 파피에 콜레 작품

1-2. 포토몽타주

포토몽타주는 사진을 이용해 재구성을 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 포토몽타주는 콜라주의 확대의 개념으로 사진의 한 부분을 오려서 재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이미지를 만든다.

또한 이러한 화면에 그림이나 색, 글씨를 넣을 수 있다. 이러한 포토몽타주 기법은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어느 한 부분을 그림 대신 사진을 잘라서 붙일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을 화면에 가져옴으로써 재구성을 해보는 표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림10>



<그림10> 포토몽타주 작품

1-3. 앗상블라주

앗상블라주는 ‘집합’, ‘조합’의 의미로 2차원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체, 폐품 또는 재활용품을 모아 조립해서 작품을 제작하는 기법을 말한다. 앗상블라주라는 단어는 뒤뷔페가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앗상블라주의 시도는 피카소, 브라크, 뒤샹 등에 의해 시도되었다.

앗상블라주는 아이들이 일상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체나 폐품, 재활용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원하는 재료를 선택하고 작품에 가져옴으로써 동기유발을 할 수 있다. 3차원의 입체작품으로 아이들의 조형성과 창의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기법이다. <그림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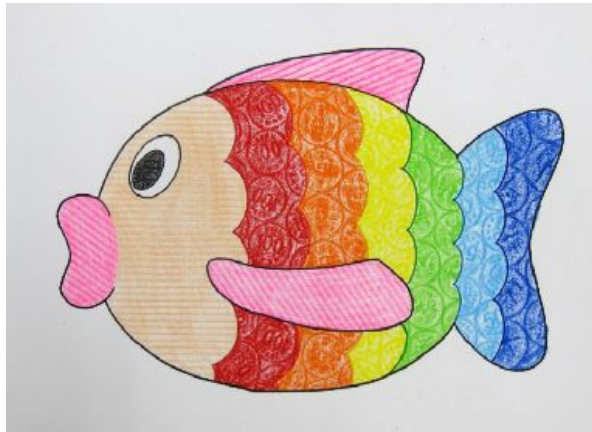
<그림11> 앗상블라주 작품

1-4. 프로타주

프로타주는 불어로 frotter, ‘문지르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프로타주 기법은 에른스트에 의해 시작하였다. 나뭇잎이나 나무판, 형겔 등 표면이 거칠거나 울퉁불퉁한 것 위에 종이를 대고 연필이나 색연필을 대고 문지르면 물체의 무늬가 나오는 기법이다. 프로타주 기법은 주제에 맞게 응용하여 질감표현을 할 수 있다.

아이들이 활동을 할 때 자연에서 나뭇잎이나 나무 조각, 꽃잎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프로타주 기법을 사용한다면 대상에 대한 관심과 관찰력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자연물 이외에도 다양한 재질의 물체를 사용하여 기법을 응용하여도 좋다. <그림12>



<그림12> 프로타주 작품

1-5. 그라타주

그라타주는 색을 두껍게 칠하고 그 위의 표면을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 긁어서 이미지를 나타내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흔히 스크래치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아동미술시간에 주로 볼 수 있다. 크레파스나 물감, 색연필을 이용해 바탕을 칠하고 그 위 검정색이나 어두운 색을 덧칠하고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 긁어서 그림을 그린다. <그림13>



<그림13> 그라타주 작품

1-6.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는 종이에 무늬를 찍어 얇은 막을 형성하게 한 뒤 다른 표면에 옮겨 찍는 방법을 말한다.

우연의 효과로 인해 나오는 여러 무늬를 보고 상상력을 기를 수 있고 물감이 자연스럽게 혼색되는 과정에서 신비감을 얻을 수 있다.

데칼코마니는 비교적 활동이 쉬운 기법 중 하나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적절한 기법이다. 어려운 그림이나 뚜렷한 형태를 나타내는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연령층이 가능한 기법으로 사용된다. <그림14>



<그림14> 데칼코마니 작품

본 논문에서는 자연물 풀라주 기법을 활용해 유아 생태미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자연물을 활용해 미술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은 다수 있지만 본 논문의 프로그램에서는 풀라주의 교육적 효과를 고려해 풀라주 기법을 활용한 유아 생태미술교육 프로그램을 구체화 하고자 한다.

다양한 풀라주 기법들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프로타주, 포토몽타주, 파피에 콜레 기법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에 풀라주 기법을 사용하였다.

자연물을 이용하여 손쉽게 적용시킬 수 있는 프로타주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대상을 더욱 깊이 있게 관찰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왔다.

아이들은 난이도가 있는 대상이나 그림을 접했을 때 아이들에게 거부감을 가져올 수 있고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사진을 이용한 포토몽타주 풀라주 기법을 사용하였다.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사진을 골라서 붙이고 나머지 배경부분은 이야기를 만들어주며 그려 나가면서 친구들과 소통을 하며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단순 색연필, 연필, 싸인펜, 물감 등의 일반적인 미술재료로 화면을 구성하는 그리기, 만들기 위주의 활동보다는 다양한 자연물과 재료를 붙이는 과정에서 대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 관찰할 수 있는 기회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 본다. 또한 다양한 기법과 표현을 통해 수업을 진행 한다면 아이들의 흥미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자연물 이외에도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기 위해 종이로 된 천, 색종이 등을 이용해 파피에 콜레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기법들은 생태미술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술교육 현장에서도 수업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자연물 풀라주를 활용한 생태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지만 자연물 이외에도 다양한 미술재료와 기법을 제시함으로써 생태와 미술교육을 아우르는 교육에 목적이 있다.

나. 풀라주 교육적 효과

풀라주는 기존 평면회화 양식에서 벗어나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재료를 붙여서 자유로운 표현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은 재료를 탐색하며 주변 사물에 대한 관심과 인식 변화를 가져오고 확장적 사고를 길러줄 수 있다. 또한 자기 자신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여러 가지 재료와 방법으로 창의적인 표현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표현 활동은 아이들에게 미적 감각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만족감과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자신감을 길러 줄 수 있다.

이러한 풀라주의 교육적 효과를 유아생태미술교육에 적용 시켜봄으로써 생기는 교육적 효과를 살펴본다.

첫째. 풀라주 기법은 뛰어난 감각, 소질, 재능이 없어도 활동이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동기유발이 가능하다. 언어소통을 하기 어려운 아이나 그림을 그려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어려운 아이, 장애를 가진 아이도 풀라주 기법을 통해 자기표현이 가능하며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아이들의 소 근육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풀라주 기법은 미적 재능이 뛰어나지 않아도 다양한 재료를 통해 자기표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풀라주의 재료선택을 할 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연물이 모두 작품의 소재가 될 수 있으며 아이들의 사고력 확장을 기를 수 있다.

자연물을 활용한 풀라주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재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은 자연물 재료를 탐색하고 주변 환경이나 사물에 대한 인식, 생각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평면 회화 뿐 아니라 입체 표현도 어떠한 구애 없이 자유롭게 표현활동이 가능하다.

자연물 이외에도 자기가 쓰고 있는 물건, 집에 있는 물건, 우리가 생활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에서부터 버려지는 폐품도 모든 대상들이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 평소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고 무심코 그냥 지나가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에 대한 형태, 색, 모양 등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 질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셋째. 다양한 풀라주 기법을 활용한 표현 방법은 아이들의 조형성과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고 미적 감각을 심어 주며 이러한 미술활동을 통해 자기표현의 만족감을 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기법과 재료를 활용해 폭 넓은 미술경험을 쌓고 표현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다양한 풀라주 재료를 활용하여 아이들의 표현력 신장방안을 연구한 논문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풀라주를 활용하여 아동의 표현력 신장에 대해 연구 하였는데 학생들의 주제 표현력 변화가 매우 높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창의성 발달에 큰 도움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또한 자연물을 활용해 풀라주의 여러 기법을 적용시켰을 때 아이들의 흥미유발과 학습태도가 향상 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의 접근도 용이 했으며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풀라주 기법은 아이들에게 조형성과 창의성을 길러주고 자기표현의 만족감으로 자신감을 심어준다.

더불어 플라주의 재료로 자연물을 활용했을 때 아이들의 호기심과 적극성은 더욱 높았으며 자연물을 관찰하고 생태계 구조를 알아가며 자연에 대한 인식, 태도 등을 갖추게 한다.

Ⅲ. 자연물 풀라주 기법을 활용한 미술 프로그램 개발

제1절 프로그램 개발 기본방향

본 프로그램에서는 아동의 생활 경험, 교육적 필요를 고려하여 생활주제와 생태, 미술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의 < 표 1 >에서는 자연물 풀라주 기법을 활용한 미술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큰 영역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주제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임을 알려주고 아이들은 이러한 계절에 따른 날씨변화를 느끼며 자연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사계절을 바탕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특징을 살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로 선정을 하였다. 소주제는 봄에는 탄생을 알아보고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을 알아보며 여러 가지 씨앗으로 풀라주 기법을 활용해 표현해보고 직접 씨앗을 심어보는 활동을 함으로써 자연에 한발 짝 더 다가갈 수 있다.

여름에는 갯벌의 생태계를 알아보고 살아있는 생물을 직접 관찰하며 갯벌에 사는 자연물을 이용해 나만의 갯벌을 만들어보았다. 여러 가지 생물을 다양하게 관찰하고 경험하였을 때 아이들은 관심과 호기심이 확대되며 다양한 재료를 통해 오감활동을 하였을 때 그 기억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 본다.

가을에는 수확의 의미와 들판에서 자라나는 여러 곡식들을 알아보고 다양한 곡식과 가을에 맞는 재료들을 활용해 그림을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겨울에는 겨울잠을 자는 동물의 생활을 알아보며 숲속 친구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 중 다람쥐를 표현하는 시간을 갖고 다람쥐가 겨울잠을 자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자연에서 가져와 아이들이 다양한 관찰을 할 수 있게 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바탕으로 각 계절의 특징을 살려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으나 더욱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지속적이고 연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환경과 그 환경에 대한 자연 현상과 환경 문제를 알고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 표 1 > - 자연물 꼴라주 기법을 활용한 미술 프로그램

구분	주제	활동목표	활동내용
봄	봄 -나만의 정원 만들기 <소주제 : 씨앗 심기>	식물 생태구조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씨앗이 자라서 꽃이 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나만의 개성 있는 화분을 꾸미고 직접 씨앗을 심어 본다. 다양한 꼴라주 기법을 사용해서 나만의 정원을 만들어 본다.
여름	여름 - 갯벌 생태계 <소주제 : 갯벌 친구들>	갯벌 생태계를 알아보고 갯벌에 사는 생물들을 관찰해보고 나만의 갯벌을 만들어본다.	갯벌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 가지 갯벌 친구들을 이용해 갯벌을 꾸며준 후 갯벌체험을 하는 자신의 모습도 그려서 붙여본다.
가을	가을 - 수확의 계절 <소주제 : 여러 가지 곡식>	수확의 의미를 알아본다. 수확의 계절인 가을에 나는 여러 가지 곡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가을에 수확하는 여러 가지 곡식을 붙여서 표현해보고 물감을 이용해 짙어 표현 한다. 가을과 관련된 식물들을 이용하여 꾸며준다.
겨울	겨울 - 겨울잠 자는 동물 <소주제 : 다람쥐 친구>	겨울잠 자는 동물들을 알아보고 그 중 다람쥐의 겨울잠 자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에 대한 동화책을 읽어주고 다람쥐가 겨울잠을 잘 공간을 낙엽으로 붙여주고 밤, 도토리 등을 이용해 다람쥐와 관련된 자연물을 꼴라주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자연물 꼴라주 기법을 활용한 생태미술교육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생태미술을 기반으로 < 표 2 >에서는 다양한 재료들을 제시하였는데 주 재료는 동식물 자연물이다.

동식물 자연물 이외에도 다양한 미술 재료들을 접목하여 화면구성을 하였고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재료를 제공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으며 다양한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 하였다. 색깔, 모양, 크기, 재질 등이 다양한 자연물은 미술수업의 재료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훌륭한 놀이 소재가 되기도 한다. 또한 아이들은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서 자연물을 탐색한다.

냄새를 맡고, 눈으로 관찰하고, 촉감을 느끼고, 소리를 듣고, 맛을 보며 관찰을 한다. 또한 아이들은 이러한 탐색, 관찰, 발견을 통해 상상력을 자극시키고 더불어 자연생태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관련된 동식물 재료를 이용해 꼴라주 기법에 활용을 하고 봄에 관련된 재료, 여름에 관련된 재료, 가을, 겨울에 관련된 재료들로 표현활동을 하였을 때 아이들은 자연의 변화와 우리생활의 변화도 함께 알아갈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의 폭 넓은 탐색을 위하여 동식물은 되도록 생물을 관찰하도록 하였고 생물 관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진자료나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였고 교육기관 사정에 따라 아이들과 함께 자연물을 수집하는 것도 좋다.

자연물 재료들의 특징과 장점으로 인해 미술수업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재료의 확대는 아이들과 자연을 가깝게 해주고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표현활동은 아이들의 표현력 신장에 영향을 주고 자유로운 표현활동은 자신감을 불러온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자연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 표 2 > - 재료의 다양화

재료	세부항목	
자연물	동물	낙지, 칠게, 바지락, 꼬막
	식물	여러 가지 곡식, 말린 고추, 밤, 도토리, 솔잎, 나뭇가지, 여러 가지 나뭇잎, 씨앗, 배양토, 미역, 꼬시래기(해조류 식물), 강아지풀, 튀밥, 땅콩
생활용품	화분, 분무기, 투명한 통	
미술재료	도화지, 색연필, 물감, 물통, 붓, 가위, 풀, 싸인펜, 네임펜, 크라프트지, 마스킹테이프, 목공용 풀, 글루건	
시청각 재료	동화책	-갯벌에 뭐가 사나 볼래요 -WHAT? 다람다람, 다람쥐는 왜 겨울잠을 잘까?
	매체	노트북, 사진자료

2절. 프로그램 지도안 및 활동 분석

1. 봄 - 나만의 정원 만들기

< 표 3 > - 나만의 정원 만들기

대주제	봄	소주제	나만의 정원 만들기 - 씨앗심기
대상연령	7세	수업시간	90분
		수업일시	2017.03
학습목표	식물의 생태구조를 알아보며 씨앗이 자라서 꽃이 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나만의 정원을 만들어 본다.		
준비물	화분, 씨앗, 배양토, 나뭇잎, 도화지, 색연필, 나뭇가지, 여러 가지 씨앗(호박씨, 해바라기 씨, 홍화씨, 한련화 씨, 무순씨), 물감, 분무기, 글루건, 목공용 풀, 돌		
자연체험활동 (30분)	수업내용		유의사항
	교육기관 근처의 공원에 나가 자연체험활동을 하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연물을 관찰하고 수업에 관련된 자연물 중 원하는 자연물을 수업 재료로 가져 온다.		아이들이 마음껏 자연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되 안전에 유의한다.
도입 (10분)	-각자 가져온 자연물에 대해 소개한다. -오늘의 주제 제시. -씨앗은 어떻게 생겼는지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은 무엇일까? 알아보고 씨앗 동요를 시청각 자료를 통해 들려주고 같이 불러본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전개 (40분)	<나만의 정원 만들기> -물감을 이용해 화분을 꾸며 준다. <씨앗 관찰>		-아이들이 자연물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오감활동의 시간을 준다.

	<p>-씨앗을 제시하고 관찰한다. 모양, 색깔, 촉감, 냄새, 소리 등을 느끼며 오감활동을 한다.</p> <p><나만의 정원 만들기> 다양한 씨앗으로 풀라주 기법을 활용해 나만의 화분을 꾸민다. -화분 속에 나뭇가지를 세우고 나뭇잎을 프로타주 기법을 사용해 붙인다. 다양한 꽃잎들도 붙여서 나만의 정원으로 표현한다.</p> <p><씨앗 심기> -씨앗 심는 과정을 설명해준다. -배양토를 제시하고 관찰하며 오감활동을 한다. -화분에 배양토를 넣고 씨앗을 심는다. 물을 주고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p>	<p>-나뭇가지를 고정할 때 글루건 사용은 교사의 개입이 필요하다.</p>
<p>마무리(10분)</p>	<p>-작품소개와 느낀 점을 발표 한다. -정리 후 다음 차시 예고를 한다.</p>	<p>씨앗이 성장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p>

<활동 분석>

본 수업은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였다.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 인근 공원에 나가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자연물들을 탐색해보기로 하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오늘 수업에 관련된 자연물들을 각자 봉지에 담아오기로 한다. <그림15> 자연체험활동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와 각자 가져온 자연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야기를 나눈 후 오늘 만들 주제를 제시하고 오늘 주제인 봄에는 새싹과 꽃이 피는 계절임을 설명해주고 새싹과 꽃이 피는 과정을 씨앗 동요를 불러보며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오늘의 수업주제인 나만의 정원 만들기-씨앗심기에 대해 설명해주고 미리 준비한 화분을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서 밀바탕을 색칠한다. 물감사용이 끝난 후 오늘 수업에서 만나볼 씨앗 친구들을 소개한 후 씨앗의 색깔, 모양, 맛, 냄새, 촉감 등을 관찰해본다. <그림16> 이때 교사는 아이들이 다양한 감각을 이용해 씨앗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림15> 자연 체험활동



<그림16> 씨앗 탐색

아이들은 다양한 씨앗을 보며 관심을 보였고 맛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아 먹을 수 있는 호박씨, 해바라기 씨앗은 함께 먹어봤다. 홍화씨, 한련화씨는 먹을 수 없는 씨앗이기 때문에 주의를 주었고 간단히 맛을 본 후 활동이 끝나고 다시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표현활동으로 들어갔다.

화분을 꾸밀 때 다양한 방법과 재료가 있지만 오늘은 씨앗을 주제로 씨앗을 이용해서 화분을 꾸며보기로 설명을 했다. 아이들은 목공용 풀을 이용해 여러 가지 씨앗을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화분에 붙이며 활동을 하였다. 이때 아이들은 작은 씨앗을 손으로 집어서 붙이는 활동을 할 때 집중력이 향상되었고 이러한 활동은 유아의 소 근육 발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화분이 완성되면 글루건을 사용해 나뭇가지를 화분에 고정시킨다. 글루건 사용은 교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뭇가지를 꾸밀 나뭇잎을 표현하기 전에 종이접기, 색지 오려붙이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프로타주라는 새로운 기법을 사용하여 나뭇잎을 표현해보기로 설명했다. 각자 가져온 나뭇잎을 꺼내고 아이들에게 모양, 색, 냄새, 재질 등을 관찰하게 한 후 프로타주라는 어려운 단어설명보다 직접 시범을 보이며 아이들에게 알려줬다. <그림17> 이때 아이들은 호기심을 보이며 신기한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원하는 나뭇잎을 이용해 프로타주기법으로 나뭇잎을 표현하도록 했다. <그림18>



<그림17> 프로타주 시범



<그림18> 나뭇잎 프로타주

표현된 나뭇잎은 가위로 오리고 나뭇가지에 붙여줬다. 표현활동이 다 끝난 후 개인접시에 미리 준비해둔 배양토와 무순 씨앗을 각자 나누어줬다. 이제 씨앗을 심어볼 차례임을 알려주고 씨앗심기 과정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오늘 심어볼 씨앗은 무순씨앗임을 알려주고 무순의 사진을 보여준 후 활동에 들어갔다. 먼저 씨앗을 탐색하였는데 아이들은 조금한 씨앗을 마치 아이를 다루는 듯 손에 감싸고 관찰하였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조금한 씨앗이 키가 큰 새싹이 되는 것이 신기하다며 호기심을 보였다. 씨앗관찰을 한 후 배양토를 탐색했다. 배양토는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흙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배양토의 색깔, 냄새, 촉감 등을 탐색한다. <그림19> 이때 아이들은 촉감이 부드럽고 거름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대답하였고 손등에 뿌려보고 모래성 쌓기 놀이를 하며 다양하게 탐색을 하였다. 탐색이 끝난 후 씨앗심기 활동에 들어갔다. 아이들에게 손을 이용해 화분에 직접 흙을 담아주었다. 손가락이나 삼을 이용해 흙을 담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촉감을 더 느낄 수 있도록 손을 이용해서 흙을 담았다. 화분에 흙을 80%정도 담고 씨앗을 뿌리고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흙이 물을 다시 덮어줘야 한다고 설명하며 흙을 덮어준 후 각종 나뭇잎이나 작은 자갈돌을 이용해 정원처럼 꾸며준 후 분무기를 이용해 물을 주었다. <그림 20>



<그림19> 배양토 탐색



<그림20> 나만의 정원 꾸미기

마무리 단계로 아이들에게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에 대해 발문하며 아이들에게 반복학습을 시켜 주었고 나뭇잎을 밑에 대고 색연필로 문지르며 표현한 기법에 대해 아이들에게 퀴즈를 내며 수업을 마무리 하였다. <그림21>, <그림22> 완성된 작품은 관찰수업으로 연계하여 자라나는 과정을 그림일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아이들은 인공물로 수업을 하였을 때 보다 만들기 재료에 호기심을 더 보였고 여러 가지 씨앗 모양이나 나뭇가지, 나뭇잎 등 자연물을 보며 자신이 직접 자연에서 가져온 재료로 수업을 하니 학습태도도 향상이 되었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재미있게 수업을 하였다.

또한 이러한 재료를 탐색하며 플라주 기법을 사용해 수업을 하니 아이들의 집중도도 높아지고 자유로운 표현활동은 아이들의 미적 감각도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의 활용으로 수업을 하니 아이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자유로운 표현활동은 아이들의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Tip : 나뭇가지를 꾸밀 때 클레이를 이용하여 나뭇잎, 곤충 등을 만들어 붙여주면 좋다. 또한 나무 밑에 쉬고 있는 모습, 또는 다양한 포즈를 취한 나의 모습도 그려서 붙여주면 완성도 높은 작품이 완성될 수 있다.



<그림21> 완성작



<그림22> 완성작

• 지도상 유의사항

- 1) 직접 수집이 어려운 재료는 미리 준비하도록 하고 한다.
- 2) 자연물 탐색을 할 때 충분한 탐색시간을 제공한다.
- 3) 아크릴 물감을 사용할 때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앞치마를 착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4) 자연체험활동을 할 때 인솔교사 2명 이상이 필요하며 아이들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 5) 여러 가지 나뭇잎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중간에 나뭇잎을 교체해 준다.
- 6) 자연물을 탐색할 때 아이들이 다양한 감각을 이용하여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2. 여름

< 표 4 > - 갯벌 생태계

대주제	여름	소주제	갯벌 생태계 -갯벌 친구들
대상연령	6세	수업시간	60분
		수업일시	2017.04
학습목표	갯벌 생태계를 알아보며 갯벌에 사는 생물들을 관찰해보고 나만의 갯벌을 만들어본다.		
준비물	갯벌 생물(칠게, 낙지, 바지락, 조개류, 꼬막, 미역, 꼬시래기), 찰흙, 투명한 통, 도화지, 가위, 풀, 동화책, 이쑤시개, 돌, 색연필		
자연체험활동	수업내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 미리 갯벌체험을 한다. -갯벌에서 낙지, 게 등 다양한 생물을 관찰하고 채집한다. -갯벌에서 잡은 생물들은 집으로 가져간다. -조개, 돌 등 재활용 할 수 있는 재료들은 맛있게 먹고 씻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야외 체험활동 시 아이들의 안전에 신경 쓴다.
도입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를 한다. -갯벌체험활동 이야기를 나눈다. -갯벌 생태계의 특징, 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갯벌에 사는 친구들은 누가 있는지 동화책을 읽는다.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한다.
전개 (40분)	<p><갯벌 생물 탐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갯벌에 사는 생물들을 제시하고 관찰하며 오감활동을 통해 탐색한다. -갑각류, 어패류, 연체동물, 해조류를 알아본다. <p><칠게 탐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게다리와 게의 다리수를 세어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을 탐색할 때 꽃게의 집게부분이 날카로워 다칠 수 있으니 유의해서 관찰하도록 지도한다.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생물의 관찰을 충분히 할 수

	<p>-딱딱한 껍질을 만져본다. -눈 위치를 찾아본다. -숫게, 암게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p> <p><낙지 탐색> -낙지의 다리는 몇 개인지 세어본다. -흡반을 탐색하고 얼마나 힘이 썸지 만져본다. -연체동물 낙지를 만져본다. -머리, 몸통, 다리 위치를 확인 해본다.</p> <p><갯벌 만들기> -투명한 통에 찰흙을 이용해 갯벌의 뺨을 표현한다. -손가락을 이용해 게 구멍을 표현한다.</p> <p>-갯벌에 사는 게, 조개, 미역, 꼬시래기. 등등을 원하는 위치에 붙이고 나만의 갯벌을 꾸며 준다.</p> <p>-갯벌 체험하는 자기모습을 그리고 올려 붙인다. -조개껍데기를 이용해 갯벌 밖을 꾸며준다. -친구작품과 비교해본다.</p>	<p>있는 시간을 제공한다.</p> <p>-관찰 방법을 변화시켜주거나 효과적인 탐색이 이루어지기 위해 교사의 적절한 개입이 요구된다.</p> <p>-갯벌 밖을 꾸밀 때 글루건 사용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때 손이 데이지 않도록 장갑을 꼭 착용하고 교사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p> <p>-본 수업 이전에 갯벌에서 잡은 생물들은 집으로 가져가게 하고 본 수업 시에는 교사가 재료를 준비한다.</p>
<p>마무리(10분)</p>	<p>-갯벌에 사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 발문한다. -작품소개와 느낀 점을 발표 한다. -정리 후 다음 차시 예고를 한다.</p>	<p>손을 깨끗하게 씻고 주변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p>

<활동 분석>

본 활동은 6세를 대상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큰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참여 하였던 수업이다. 직접 갯벌에 나가 갯벌체험을 하고 갯벌에 사는 생물들을 잡아 집에 가져가기도 하였다. <그림23>, <그림24>

지난 시간 다녀온 갯벌 체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더 나아가 갯벌 생태계에 관한 동화책을 읽는다. 동화책을 읽고 난 후 아이들에게 갯벌에 다녀온 경험과 갯벌이 어떤 곳인지 아는 친구들이 있는지 물어보며 경험을 이야기하게 하였다. 이때 아이들은 손을 번쩍 들며 갯벌에 대한 이야기 하며 자신 있는 모습을 내보였다. 낙지를 잡아본 아이, 조개를 캐본 아이 등 갯벌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을 말을 하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였다.

갯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갯벌이 생겨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줬다.

바닷물이 빠지면 썰물이라고 하는데 썰물일 때 바다의 육지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려주고 갯벌은 죽은 동물과 식물의 배설물이 작게 부서지면서 만들어진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 갯벌 생물들과 그 갯벌 생물들을 잡아먹는 적들과 함께 갯벌은 복잡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갯벌 생태계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난 후 낙지, 바지락, 칠게, 미역, 꼬막, 꼬시래기를 제시하고 탐색했다. 이때 아이들은 더욱 가까이 보기위해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관심을 보이는 아이도 있고 반면 무서워서 겁을 먹은 아이도 있었다.



<그림23> 갯벌 체험



<그림24> 갯벌 체험

아이들에게 낙지는 연체동물 문어과에 속한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낙지는 머리, 몸통, 다리로 구별되며 다리에는 빨판이라 하기도하고 흡반이라 하는 힘이 썬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아이들과 낙지 다리 개수도 세어 보았다. 아이들은 낙지 다리를 손등에 올려 보기도하고 손으로 눌러보기도 하며 빨판의 힘에 놀라기도 하며 탐색을 하였다. <그림25>

그 다음 꼬막, 바지락을 탐색하였다. 울퉁불퉁한 꼬막 표면도 만져보고 매끄러운 표면을 가진 바지락도 만져보며 서로를 비교해보았다. 또한 미리 준비해둔 여러 가지 조개껍데기를 보며 다양한 모양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었다.

다음은 해조류인 미역과 꼬시래기를 탐색하였다. 바다에 물이 빠지면서 갯벌에서 해조류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미역은 마른미역과 물에 넣었을 때 퍼져서 양이 많아졌다는 것을 보여줬고 또 다른 해조류인 꼬시래기도 함께 보여주었다. 아이들은 평소에 즐겨 먹는 미역국에 재료로 쓰이는 미역을 보며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반면 꼬시래기는 아이들이 처음 보는 아이들도 있어서 냄새를 맡아보고 손으로 비벼보며 미끌미끌한 느낌도 느껴 보았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칠게다. 아이들은 집게를 번쩍 들며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 눈, 다리 등을 보며 ‘우와 우와’ 소리를 지르며 좋아했다. <그림26>



<그림25> 생물 탐색



<그림26> 생물 탐색

아이들에게 게는 왜 옆으로 걷는지, 다리는 몇 개인지, 수게, 암게 구별하는 방법, 눈의 위치 등을 알려주며 관찰을 하였는데 아이들은 설명을 듣고 나니 관찰하는 방법이 달라진 것이 보였다. 아이들은 손으로 잡아서 손 안에서 기어가는 모습을 관찰하기도하고 집게를 들어보기도 하고 딱딱한 등껍질을 만져보고 긴 눈자루가 나올 때, 들어갈 때는 언제인지 친구들과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들에게 충분한 탐색 시간을 준 후 갯벌 만들기에 들어갔다. 투명한 통과 찰흙을 나누어주고 손으로 꺾꺾 눌러 갯벌의 뺨을 표현하였다. <그림27>

그 다음 다양한 모양과 색을 가지고 있는 돌을 탐색하고 원하는 모양을 원하는 위치에 자유롭게 놓아보았다. <그림28>

이때 아이들은 박힌 돌, 굴러다니는 돌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며 갯벌을 꾸며 나갔다. 다음은 해조류를 이용해 자연스러운 상황을 연출 하였고 꼬막, 바지락 껍질을 이용하여 꾸몄다. (꼬막, 바지락 껍질은 미리 씻어서 말려놓았다.) 이때 아이들은 갯벌 안에서 돌과 조개껍데기를 이용해 공간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리고 칠게를 그 공간 안에 넣어주기도 하고 구멍에 들어있는 게, 돌을 이용해 집을 만들어서 그 속에 숨어 있는 게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주며 재미있게 표현하였다.



<그림27> 갯벌 뺨 만들기



<그림28> 갯벌 생물 풀라주

또한 갯벌 체험을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그리고 오려서 갯벌에 붙여주고 다양한 조개껍데기 모양으로 갯벌 밖을 꾸며주었다. <그림29>

목공용 풀이 잘 붙지 않아 글루건 사용을 하였는데 이때 아이들은 손이 데이지 않게 장갑을 끼고 사용을 하였다. 사용하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꾸며주며 완성하였다. <그림30>

아이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갯벌에 사는 생물에 대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수업 마무리 단계에서 수업의 흥미도에 대해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물어보았을 때 갯벌에 대해 알아보며 생물을 직접 만지고 체험하는 부분에 대해 흥미가 가장 높았다고 하였다.

이렇게 아이들은 오감 체험을 통해 관찰력을 발달시킬 수 있고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자유로운 풀라주 표현은 아이들에게 자기 만족감과 표현력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림29> 갯벌 밖 꾸미기



<그림30> 완성작

• 지도상 유의사항

- 1) 야외 체험활동 시 아이들의 안전에 신경 쓴다.
- 2) 갯벌 체험과 수업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없으므로 본 수업에는 교사가 살아있는 생물을 준비 한다.
- 3) 갯벌 생태계에 대한 지식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 4) 자연물을 탐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 5) 글루건 사용을 할 때에는 장갑을 착용하도록 하고 또는 교사의 개입이 요구된다.

3. 가을

< 표 5 > - 여러 가지 곡식

대주제	가을	소주제	수확의 계절 -여러 가지 곡식
대상연령	7세	수업시간	60분
		수업일시	2016.10
학습목표	수확의 계절인 가을에 나는 여러 가지 곡식들을 알아보며 수확의 의미를 알아본다.		
준비물	크라프트지, 마스크테이프, 여러 가지 곡식(쌀, 콩, 팥, 옥수수알갱이, 땅콩)강아지풀, 튀밥, 색지 말린 홍고추, 물감, 크레파스, 색연필. 가위, 목공용 풀		
자연체험활동	수업내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 땅콩 캐기 체험을 한다. -땅콩 캐기 체험을 통해 땅콩이 어디서 재배하는지 알아보고 땅콩 캐기 체험을 한다. -수확한 땅콩을 재료로 가져온다. -주변 환경을 살펴보며 강아지풀 등의 자연물을 관찰하고 가져온다. 		야외 체험활동 시 아이들의 안전에 유의한다.
도입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를 한다. -수확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가을에 수확 하는 여러 가지 곡식에 대해 알아본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한다.
전개 (40분)	<p><곡식 탐색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가지 곡식을 제시하고 관찰할 수 있게 한다. -모양, 크기, 색깔, 소리 등을 통해 충분한 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땅콩 캐기 체험을 통해 수확한 땅콩을 관찰하고 탐색한다. <p><여러 가지 곡식 꾸미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크라프트지에 마스크테이프로 줄기를 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가지 곡식의 종류와 이름에 대해 설명해준다. -충분한 탐색시간을 준다.

	<p>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뭇잎 모양을 사진을 통해 관찰하고 다양한 색지를 이용해 나뭇잎을 그리고 오려 붙인다. -가을에 수확되는 여러 가지 곡식 알갱이를 이용해 꼴라주 기법을 사용하여 붙여본다. -옥수수 알갱이를 뜯어 붙여 준다. -울퉁불퉁한 옥수수 표면을 이용해 물감 찍기를 하여 옥수수를 표현한다. -강아지풀을 이용해 주변도 함께 꾸며본다. -땅콩 캐기 체험을 통해 수확한 땅콩도 붙여본다. -가을 고추잡자리를 말린 고추를 이용하여 만들어 본다. -색연필, 크레파스 등을 이용해 화면 구성 효과를 높여준다. 	
<p>마무리(1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을에 수확되는 곡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작품소개와 느낀 점을 발표 한다. -정리 후 다음 차시 예고를 한다. 	<p>아이들에게 발표할 때 동일하게 발표권을 준다.</p>

<활동분석>

본 활동은 가을은 수확의 계절임을 알려주고 수확의 의미를 알 수 있으며 가을에 수확되는 여러 가지 곡식의 종류를 알아보는 활동이다.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 땅콩 캐기 체험을 미리 하고 땅콩을 수확해서 가져온 후 자연물 소재로 가져왔다. <그림31>, <그림32>

아이들에게 수확은 잘 익은 농작물을 거두는 것임을 알려주고 가을에 수확되는 여러 가지 곡식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먹고사는 쌀은 벼에서 수확하고 검은콩, 팥, 땅콩 등은 콩 껍질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8월 상순, 입추에 수확되는 옥수수의 수확도 알려주었다. 수확과 여러 가지 곡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이번 활동에서는 줄기에서 나는 여러 가지 곡식을 표현해보는 활동임을 알려주었다.

먼저 가을느낌이 나는 크라프트지를 사용해 아이들에게 마스킹테이프로 골게 뺀 줄기를 붙여보게 하였다. 총 3개의 줄기를 붙였는데 벼, 콩 줄기, 옥수수 줄기를 표현하였다. 줄기를 표현한 후 콩 줄기의 나뭇잎 모양, 옥수수 줄기의 나뭇잎 모양, 벼 줄기의 나뭇잎 모양을 사진으로 관찰해보았다.



<그림31> 땅콩 캐기 체험



<그림32> 땅콩 캐기 체험

다양한 색지를 이용해 나뭇잎을 그리고 오리고 원하는 위치에 붙여보는 파피에 콜레 기법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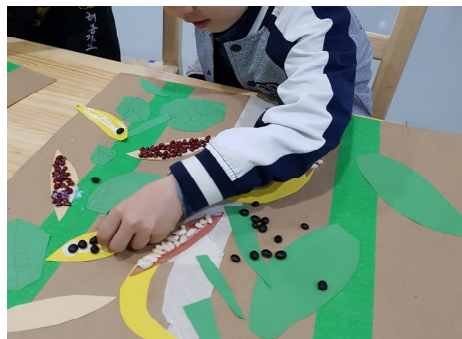
그리고 난 후 줄기에서 자라나는 쌀, 검은콩, 팥, 옥수수 등 다양한 곡식들을 탐색 하였다. 또한 땅콩 캐기 체험에서 경험하였지만 땅콩은 땅 속에서 자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아이들은 통에 담긴 곡식들을 흔들며 다양한 소리를 들었고 어떤 아이는 노래를 부르며 곡식이 담긴 통을 악기처럼 이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손으로 만져보며 뿌려보기도 하고 비벼보기도 하며 촉감을 느끼는 활동을 하였고 직접 먹어보기도 하였다. <그림33>

다양한 탐색활동을 할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갖은 후 줄기에 알맞게 곡식을 화면에 붙여주었다. 작은 곡식 알갱이들을 하나씩 집어 붙여주는 활동을 함으로써 소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고 아이들의 집중력도 향상하였다. <그림 34> 아이들은 하나씩 집어 붙여주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 쌀처럼 작은 알갱이의 곡식은 주먹으로 쥐어 뿌려주기도 하였다.

옥수수의 경우 옥수수의 맛을 보기도하고 옥수수의 모양 특징을 살려 물감 찍기를 하였다. 이 활동을 할 때 아이들은 새로운 재료가 등장함으로써 관심을 보였다. 이 활동이 끝나면 크레파스를 이용해 곤충을 그려주기도 하며 그림을 더 풍부하게 꾸며주었다.



<그림33> 곡식 탐색



<그림34> 곡식 플라주

가을하면 생각나는 곤충 고추잠자리는 말린 홍고추를 이용하여 몸통을 붙여 주고 날개와 머리, 눈을 그려주었다. 또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강아지풀을 갈대처럼 이용해 붙여주었는데 아이들이 강아지풀을 탐색할 때 친구의 얼굴에 문질러 보기도하고 조심히 손으로 잡아보며 간지러운 느낌도 느껴보며 즐겁게 탐색하며 그림에 붙여주며 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그림35>, <그림 36>

아이들은 자연물을 가지고 탐색하며 자유롭게 구성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조형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고 아이들은 자연을 관찰하고 체험을 통해 그 안에서 느낀 아름다움을 미술활동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표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Tip : 그리는 것을 힘들어 하는 아이의 경우 클레이를 이용하여 곤충이나 꽃을 만들어 표현 하여도 좋다. 또한 옥수수의 경우 옥수수알갱이가 팝콘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팝콘을 먹으며 수업을 진행하여도 좋다



<그림35> 강아지풀 플라주



<그림36> 완성작

• 지도상 유의사항

- 1) 야외 체험 활동 시 아이들의 안전에 유의한다.
- 2)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3) 작은 알갱이들을 붙이는 것을 힘들어하는 아이는 교사가 함께 붙이면서 도움을 준다.
- 4) 다양한 탐색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4. 겨울

<표 6 > - 다람쥐 친구

대주제	겨울	소주제	겨울잠을 자는 동물 -다람쥐 친구
대상연령	5세	수업시간	60분
		수업일시	2016.10
학습목표	겨울잠 자는 동물을 알아보고 겨울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준비물	크라프트지, 낙엽, 동화책, 밤, 도토리, 솔잎, 도화지, 가위, 풀, 목공용 풀, 색연필, 싸인펜, 다람쥐 사진, 색지, 크레파스, 씨앗		
자연현장체험	수업내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 밤 줍기 체험을 한다. -체험을 통해 밤의 생김새와 밤 나무에 대해 알아보고 밤 줍기 체험을 한다. -수확한 밤을 재료로 가져온다. -주변 자연물도 함께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p>아이들이 마음껏 자연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되 안전에 유의한다.</p>
도입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를 한다. -WHAT? 다람다람, 다람쥐는 왜 겨울잠을 잘까? <동화책>을 읽고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 알아보고 그 중 다람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전개 (35분)	<p><겨울잠 자는 다람쥐에 대해 알아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람쥐에 대해 알아보고 겨울나기와 먹이 창고에 대해 알아본다. <p><다람쥐의 겨울잠 공간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리 만들어 놓은 땅속에 다람쥐의 공간을 꾸며주기로 한다. -아이들이 자연에서 얻은 자연물을 이용해 공간을 꾸민다. -낙엽을 이용해 이불을 만들어 주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람쥐의 생김새의 다양한 사진을 보여준다. -포토몽타주의 기법을 설명해주고 다람쥐의 얼굴이나 몸을 포토몽타주 기법을 사용해 작업 해본다.

	<p>다람쥐의 먹이인 밤, 도토리, 씨앗 등의 자연물을 함께 붙여주고 겨울과 관련된 자연물도 함께 붙여준다.</p> <p>-겨울잠을 자는 다람쥐를 포토몽타주 기법을 사용해 붙이고 그려준다.</p> <p>-땅 속에 사는 다른 친구들도 그려주며 꾸며준다.</p>	
<p>마무리(10분)</p>	<p>-작품소개와 느낀 점을 발표 한다.</p> <p>-정리 후 다음 차시 예고를 한다.</p>	

<활동 분석>

본 활동에서는 5세를 대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 밤 줍기 체험을 미리 하고 수확해서 가져온 후 자연물 소재로 가져왔다. <그림37> 체험을 하기 전 충분한 동기유발을 위해 겨울잠 자는 다람쥐가 주제임을 밝히고 겨울과 관련된 식물, 다람쥐에게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 해보기로 한다. 체험이 끝난 후 교실에서 겨울잠 자는 동물을 주제로 겨울잠을 자는 동물인 다람쥐 친구가 오늘 주제임을 설명하고 다람쥐가 겨울잠을 자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동화책으로 읽어주었다. <그림38> 동화책을 읽고 난 후 다람쥐가 겨울잠을 자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였는지 아이들에게 발문하였다. 아이들은 ‘추우니까 낙엽을 덮고 자요!’, ‘땅 속으로 들어가요!’ 등 동화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이야기 하였다. 다람쥐가 겨울잠을 잘 때 다람쥐의 겨울나기의 모습을 표현하기로 하고 오늘은 아주 큰 땅 속을 표현하기 위해 큰 종이에 다 같이 합동작업을하기로 이야기를 하였다. 다람쥐는 겨울잠을 잘 때 우리처럼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을 알려주고 다람쥐에게도 이불을 만들어 주기로 한다. 이불을 만들어줄 낙엽친구를 소개하고 모양, 색깔을 관찰하고 낙엽을 손으로 쥐어보고 찢어보기도 하며 바스락 거리는 소리도 느껴보았다. 관찰 후에는 다양한 낙엽을 이용해 땅 속 다람쥐의 집에 낙엽 이불을 붙여주었다.



<그림37> 밤 줍기 체험



<그림38> 동화책 읽기

그리고 난 후 먹이창고를 꾸며보기로 했다. 다람쥐가 어떤 먹이를 먹고사는 지 아이들에게 질문을 한다.

아이들은 도토리, 밤, 풀, 등 다양한 식물을 이야기 하였고 다람쥐가 먹는 밤, 도토리, 씨앗을 실물관찰을 하였다. <그림39>

밤을 부딪쳐보며 소리를 들어보고 매끄러운 표면, 색깔, 모양을 탐색하였고 아이들은 집에 갈 때 밤을 가져가고 싶다하며 집에 가져가서 먹겠다며 관심을 보였다. 도토리를 관찰할 때 아이들이 귀여운 친구라며 혹시나 작은 도토리가 굴러갈까봐 조심스럽게 만져보며 다람쥐가 먹이를 들고 있는 모습처럼 흉내도 내보았다. 씨앗을 관찰할 때 한웅큼 쥐어서 뿌려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며 탐색활동을 한 후 먹이창고에 목공용 풀을 이용하여 붙여주었다.

또한 먹이창고 뿐 아니라 다람쥐가 잠잘 때 배고프니까 다람쥐의 집에도 붙여준다며 다람쥐의 집도 먹이를 붙여 꾸며주었다. <그림40>

아이들은 자연에서 가져온 자연물 재료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탐색 활동을 하니 호기심을 보이며 즐거워했다.

이렇게 다람쥐 집을 꾸며주고 난 후 다람쥐를 그리기로 하였는데 미리 준비해놓은 여러 모습들의 다람쥐 사진을 아이들에게 사진을 제공하고 원하는 다람쥐의 모습을 고르게 하고 얼굴 부분을 가위로 오려서 도화지에 붙이게 하였다.



<그림39> 다람쥐 먹이 탐색



<그림40> 먹이 창고 만들기

그리고 잠자는 다람쥐의 모습을 그리기로 하였는데 그리기 전 우리가 잠자는 모습과 다람쥐의 잠자는 모습을 몸으로 표현을 해보며 비교를 해보았다. 그리고 난 후 잠자는 모습을 그리고 가위로 오려서 원하는 위치에 붙여주었다. <그림41>

아이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엄마 다람쥐, 아빠 다람쥐, 언니 다람쥐, 아기 다람쥐라며 역할을 정하고 다람쥐를 이용해 놀이도 하였다.

그리고 땅속에 있는 다람쥐 집을 꾸며줄 재료들을 꺼내 여러 가지 색과 모양 등을 탐색하며 땅 속에 붙여주었고 솔잎의 냄새도 맡아보고 솔잎을 얼굴, 손등에 가져가서 문질러 보기도 하며 탐색을 하였다. <그림42>

아이들은 솔잎에서 시원한 냄새가 난다는 친구, 방귀냄새가 난다는 친구 등 여러 가지 느낌을 이야기 하며 땅 위의 나무로 표현하기로 하며 붙여주었다.



<그림41> 포토몽타주 기법을 활용해 다람쥐 그리기



<그림42> 솔잎 탐색

마지막으로 땅속 개미, 다람쥐 발자국, 구름, 풀 등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려주고 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그림43>, <그림44>

아이들은 활동이 끝난 후에도 돌, 밤 등을 이용해 책상에 두드리면서 소리를 듣고 작은 소리, 큰소리를 내며 친구들끼리 연주를 해보기도 하였다.

합동 작품을 하면서 아이들이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협동심을 기르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기존 미술재료만을 활용해 활동을 하였을 때랑 자연물 풀라주 기법을 활용해 활동을 하였을 때랑 흥미도가 달랐다. 새로운 재료와 기법을 사용해 활동을 할 때 관심과 호기심이 극대화 되었고 활동을 하는 내내 즐거움을 잃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중심활동에 초점이 맞추었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흥미, 관심, 참여도가 기존 미술수업보다 높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 Tip : 다람쥐의 여러 모습을 흉내를 내보며 역할극을 할 수도 있다.



<그림43> 땅속 꾸미기



<그림44> 완성작

- 지도상 유의사항

- 1) 야외활동 시 아이들의 안전에 유의한다.
- 2) 적절한 발문을 통해 아이들에게 내용을 상기시킨다.
- 3) 결과보다는 활동하는 과정 중심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 4) 합동 작품을 하면서 아이들이 서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진행 한다.

IV. 결론

본 논문은 생태교육과 미술교육의 통합교육으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연물을 다양한 꼴라주 기법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고 교육현장에서도 할 수 있는 현실가능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야외 체험중심 위주의 연구나 자연 소재를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연구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야외 체험과 교실 안에서도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를 하였고 야외 체험활동 시 자연물 소재를 직접 채집하는 과정을 접목시킨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발달심리학자들의 연구결과로 대상에 대한 인식은 유아기 때 형성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5, 6, 7세로 정하였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생태교육을 미술과 연계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활동 중심의 유아 생태미술교육 방법을 고찰하였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유아 생태미술교육 지도방안을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생태 영역을 설정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

둘째. 자연물 탐색은 실물을 통해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연물이나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실물관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이들은 다양한 자연물의 재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고 자연물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놀이 소재가 되기도 한다.

셋째. 생태미술교육에서는 완성도 있는 결과물보다 아이들이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 표현을 실행하는 과정에 목적이 있으며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넷째. 도입, 전개, 마무리에서 체계적인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입에서는 활동목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주제에 맞게 동화책, 자료, 영상, 노래 등을 이용해 동기유발을 한다. 전개에서는 재료에 탐색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표현을 통해 자유롭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주제에 맞는 발문을 하고 작품 발표를 통해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작품에 대한 애정을 기를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아이들이 생태계를 알아가며 우리는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려주었다. 또한 자연물을 탐색하면서 오감활동을 통해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자연물과 미술활동에서의 여러 가지 풀라주 표현기법을 활용해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에서 아이들은 새로운 재료에 대한 호기심과 관찰력을 기를 수 있었고 다양한 표현기법을 통해 아이들의 표현력과 미적 감각을 기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자연물을 직접 탐색하고 재료로 사용함으로써 아이들의 관찰력이 향상되었고 자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기를 수 있었다.

둘째. 활동에 풀라주를 도입시킴으로써 아이들은 재료 탐색을 하고 다양한 표현기법을 경험을 토대로 관찰력과 자발적 흥미 유발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풀라주의 여러 기법들을 경험함으로써 학습태도가 향상되었고 이러한 활동은 폭넓은 미술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셋째. 자유로운 표현활동을 통해 자신감이 부족한 아이, 내성적인 아이도 자기표현능력이 향상되었다. 또한 자유로운 표현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자신감을 길러 주었고 자신감은 자기만족감을 가져왔다.

넷째. 현장체험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현장에서의 생태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 유아에게 생태미술교육은 자연에 대한 관심과 애정 뿐 아니라 자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자연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다양한 표현활동을 통해 창의성, 자신감 증진, 미적 감각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유아 생태미술교육이 더욱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으로 자리 잡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의미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생태교육에 대한 교사의 전문지식이 요구 되고 생태교육과 미술교육의 통합된 생태미술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변화가 요구된다.

둘째. 생태미술교육의 소재인 자연물이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활동자료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자연에 나가 탐색하고 자연물을 채집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모든 재료를 주변에서 채집하기 힘들다. 채집이 어려운 자연물 같은 경우 교사가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유아 생태미술교육은 오랜 시간을 거쳐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접근이 어려운 생태교육을 미술교육과 통합하여 도심의 교육현장에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연물을 이용해 수업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은 총 4회에 걸쳐 수업을 적용하고 분석한 결과 생태미술교육은 아이들의 호기심, 학습 태도, 표현능력 향상 등에 교육적 효과가 나타났지만 아이들의 인식변화, 환경윤리의식 함양 등 아이들의 생활에 스며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유아 생태미술교육은 오랜 시간을 거쳐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효과가 전이 될 것으로 본다.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유아 생태미술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물에 대한 관심과 관찰력이 향상되었고 자신감이 부족한 아이, 내성적인 아이도 플라주를 이용한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고 흥미를 유발 할 수 있었다. 유아 생태미술교육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면서 탐색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고 결과보다 과정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유아 생태미술교육이 아이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교육으로 자리 잡기 위해 생태미술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변화가 요구되며 유아기 때의 교육이 중요시 되지만 생태교육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른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교육기관을 중점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유아 생태미술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체험기관, 생태박물관, 외부 교육기관에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후속연구가 요구 된다.

참 고 문 헌

단 행 본

김지태, 장순응. 『환경과 인간』 . 동화기술. 2014.

김용권, 김윤희. 『유아동 생태미술 체험 놀이』 . 예서원. 2010.

노버트 린튼 지음, 윤난지 옮김 『20세기의 미술』 . 2007

박찬국 외 17인 『현대미술의 기초개념』 , 도서출판 재원. 2001.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1999.

임재택 『생태유아교육개론』 . 양서원. 2008.

황혜경 외 『자연물 중심의 유아 생태미술교육』 . 2016.

하정연, 이연주. 『생태유아교육프로그램』 . 공동체. 2009

학위논문

김주미. “창의성 발달을 향상시키는 숲 체험 활동과 생태미술 프로그램 연구 -4,5세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서지연. “학교 숲을 활용한 생태미술교육 지도방안 연구 - 초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신정은. “플라주를 활용한 미술활동이 아동의 조형미술표현력과 미술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신아란. “점토를 활용한 중학교 생태미술교육 지도방안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원유덕. “유아기 미술활동이 유아의 창의성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이슬하. “야외 체험형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국립생태원 동물생태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이지연. “미술교육에 있어서 창의적인 미술활동 지도방법 연구 -콜라주 기법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임은이. “플라주 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이 유아의 도형인지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이진아. “현대미술에 있어서 플라주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임미진. “통합적 접근을 통한 생태미술교육 방안 연구 -유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차현주. “초등미술교육을 위한 생태소재의 미술프로그램 개발연구 -1,2학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최유정. “초등학교 미술수업 연계를 위한 유아 생태미술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서울시 유치원·어린이집 만 5세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사이트

네이버 <http://blog.naver.com/elprimeart/220191740680>.

네이버 <http://blog.naver.com/hl7393/80193391077>

네이버 <http://blog.naver.com/rewhjkim/220727586260>

네이버 <http://blog.naver.com/ahinlove09/220503556430>

네이버 <http://blog.naver.com/hisbyjj/220865920179>

네이버 <http://blog.naver.com/judylady/10170827583>

네이버 <http://cafe.naver.com/kihet8911/321>